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절실

신산업육성·혁신창업 거점 담당... 지자체별 사할 정부 2012년 이후 비수도권에 29개소 설치 운영 제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미설치 지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신산업 육성 및 혁신창업 거점 역할을 담당할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국회에서 증액·지원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제외된 실정에서 형평성 문제 등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을 개소 목표로 290억원(국비 160, 지방비 130)을 투입해 제주도 아라동 소재 제주첨단산업단지 인근에 제주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센터 건립 지원을 요청했지만 부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올해 신규 지원

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비 53억원을 투입해 건립부지 8812㎡를 매입하고, 내년도 들어가는 설계비 10억원에 대한 국비를 요청했다. 이어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의 센터 건축비로 국비 150억원과 도비 7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9월 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10.2%, 전국 2위), 2차산업 16.1%(전국평균 36.5%), 3차 산업 73.7%(전국평균 61.5%) 등으로 1·3차 산업 비중이 절대적이다. 때문에 제주의 산업구조는 관광산업에 편중돼 코로나 등 외부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함에 따라 산업고도화 및 혁신성장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코로나 이후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신규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제주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 사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에 제주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 내년도 건립 설계비 1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중앙부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국회 증액사업으로 지원 중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의 논리 개발과 함께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센터 건립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당 1~4개로 모두 29개소에 이른다. 제주만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및 지식산업 보육과 창업가 양성을 비롯해 입주기업과 창업지원기관, 산업계, 연구기관, 정책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백국탁기자



비닐하우스 위 컨테이너 9월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의 전남 침수된 비닐하우스 위에 컨테이너가 올려져 있다. 연합뉴스

삶터 ‘와르르’... 수마가 할퀸 참상

이달에만 30명 사망·15명 실종... 이재민은 5900명

수마가 할퀸 전국 곳곳이 처참한 참상을 드러내고 있다.

전날 폭우가 이달에만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9일 오후 소방청이 집계한 수난사고 관련 실종자 현황은 15명이다.

실상가상으로 제5호 태풍 ‘장미’가 남해안을 향해 북상하고 있어 수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실종자 15명은 어디에...기상악화에 수색 난항

전날 거창군 주상면에서는 산사태로 경운기를 몰던 83세 남성이 매몰돼 숨지고 전북 남원에서는 배수로 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내린 폭우로 모두 1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2명이 실종되는 등 추가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밀양시 산내면 순마교 인근 하천에서는 배수로 이물질 제거하던 50대가 실종됐다.

이밖에 충북 충주, 음성, 단양과 충남 아산, 경기 포천, 전남 담양에서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물처럼 불어난 이재민...4617명 아직 귀가 못해

폭우에 견디지 못한 제방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삶터를 잃은 이재민이 속출했다.

침수피해가 큰 경남 하동군 화계

장터는 아직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아 출입통제가 계속됐다. 화계장터 일대는 상가 등 208동이 침수되고 130여명이 대피한 상태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충남 금산에서는 용담댐이 초당 물 3200t을 방류하면서 부리면과 제원면의 하천 제방이 무너졌다. 이로 인해 93세대 주민 248명이 마을회관이나 초등학교로 몸을 피했다.

충북에서는 지난 8일 금강 상류 용담댐의 방류량 확대 등이 겹치면서 영동군의 일부 지방도로와 농로, 교량이 침수되면서 교통이 통제됐다.

경남 창녕은 장천 배수펌프장 배수문 고장으로 낙동강 제방 40~50m가 유실되며 마을 침수가 발생했다. 창녕군은 낙동강 제방에 저지선을 구축하고 돌과 토사 등으로 유실된 제방을 임시 복구할 계획이다.

전남 구례 양정마을에서 떠내려간 소 100여마리는 대부분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와 강원, 인천, 부산에서는 비가 잠시 그쳐 피해 복구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태풍 ‘장미’가 10일 북상해 11일까지 100~200mm(지리산 부근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 재난관리실 관계자는 “폭우 피해 현장을 미처 복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태풍이 북상할 경우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해 복구 멀었는데’...북상하는 태풍

빗길기는 곳에 따라 일시적인 소

신임 대표 박호형·부대표 송영훈 의원

도의회 모임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선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신임 대표에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 부대표에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이 선출됐다.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지난 6일 정기총회를 열고 후반기 신임 대표단 선출과 함께 연구사업 계획 승인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연구회는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주 자연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2010년 9대 의회 때 창립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연구회 회원은 박호형 대표, 송영훈 부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성민(제주시 이도2동을)·박원철(제주시 한림읍)·송창권(제주시 외도-이호·도두)·조준배(서귀포시 안덕면) 의원과 민생당 한영진(비례대표) 의원 등 7명이 활동하고 있다.

신임 박 대표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와 그린 뉴딜 정책을 마련해나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도, 올해 성장유망 중소기업 18곳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성장 유망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으로 18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가 14곳, 재선정은 4곳이다.

‘성장 유망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하고,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을 지역경제를 선도할 제주 대표기업으

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도는 공모에 참가한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와 1차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신규 14개 업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5곳, 서비스업 5곳, 유통업 2곳, 건설업 1곳, 폐기물 1곳이다. 재선정 4개 업체는 제조업, 건설

업, 도매업, 운수업 각 1곳이다.

이들 업체는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최고 4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0.3%), 기술·경영·마케팅 컨설팅, 재산세 감면 등 2년간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성장유망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234개 기업이 선정됐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2020 공유경제 사업아이디어 공모전

2020. 8. 3(월) ~ 8. 28(금) 26일간

공유경제는 제주도의 유망사업으로 활용가능한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경제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지적 제주공유경제 사업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제주도민 혹은 팀 (팀장 포함 5인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되어있는 자※

접수방법 공유제주홈페이지(www.sharejeju.net) → 공유소식 →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주제 ‘공유도시 제주’만들기에 적합한 공유정책 아이디어
• 지역별 생활편의를 도와주는 맞춤형 공유서비스 발굴
•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사업화 가능한 아이디어
• ‘공유제주 플랫폼’ 활성화 방안
• 제주도내에서 시행중인 공유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급	최우수	우수	장려
포상인원	1명(팀)	2명(팀)	2명(팀)
시상금	300만원	100만원	50만원

※ 최종 심사 결과 내용이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방법 신청 접수 → 1차 심사 → 멘토링 진행 → 2차 심사
공유제주 홈페이지 → 서류심사 → 1:1 멘토링(3시간) → 발표(PPT) 및 질의응답

문의전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마케팅본부 기업지원팀 T.064-805-3395
※ 공유제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2020 학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

제주향교·탐라선비의 꿈을 잇다

탐라선비 교양강좌

오현과 유학사상
8월 15(토) 오후 3 ~ 5시
성균관유도회 제주지부회장 김경수

유교의 현대적변용
8월 16(일) 오후 3 ~ 5시
제주대학교 정창원교수 정창원

전통의 기본예절
8월 29(토) ~ 30(일) 오후 3 ~ 5시
제주향교전교 부성중

축문(祝文)·비문(碑文) 작성요령
9월 5(토) ~ 6(일) 오후 3 ~ 5시
제주향교사무국장 김익선

무료강좌·회차별 20명 선착순 모집

장소 : 제주향교 명륜당 제주시 서문로 43(응당1동)
문의 : 064-757-0976 / 064-742-0105

주최 | 문화재청 |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 제주향교

제주향교 전교부성중

방역지침에 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 지키기!!

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환기시스템

각종 실내 및 다중이용시설 바이러스 및 각종 오염원 확산방지
이산화탄소 저감등에 꼭 필요한 시스템!

청정환기 시스템 VS 공기청정기

실외공기의 필터링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 오염된 실내공기는 외부로 배출 → 실내공기 오염원질을 제거 창문열기 없이도 탁월한 환기 가능

공기 청정기는 실내공기를 필터링후 실내로 유입, 미세먼지, 공기중 이물질은 제거하지만 이산화탄소 등 오염원 자체 제거는 어려움 주기적 창문열기 필수

학원 및 학교 환기시스템 **사무실 환기시스템**

어린이집 및 놀이방 환기시스템 **강당 및 실내체육시설 환기시스템**

새로운공기청정 환기시스템 전시장

제주시연복로 265(더큰내일센터 옆) T. 1577-6706